

오호탱크 한글 테스트

어

오호탱크 한글 디스플레이

Version 1
presented by lo-ol



탕

VERSION 1

‘오호-tank (Ortank) 한글 텍스트 / 디스플레이’는 지오메트릭 그로테스크 계열의 서체로 기하학적 형태의 한계를 탐구한 결과물인 오호-tank 텍스트(Ortank Text), 오호-tank 디스플레이 (Ortank Display)의 한글 버전입니다. 직선형 그로테스크 스타일에서 오는 약간의 고전적인 느낌에 단순함이 결합되었습니다. 서체는 큰 단락 형식뿐만 아니라 작은 텍스트까지 여러 종류의 콘텐츠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느낌의 오호-tank 텍스트는 어느 크기에서든 알맞게 가독성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디지털 느낌의 파격적인 디자인을 지닌 오호-tank 디스플레이는 굵기가 커질수록 디자인 의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디스플레이만의 독특한 모양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호-tank 텍스트 / 디스플레이 글꼴가족은 각각 9종(Thin, ExtraLight, Light, Regular, Medium, SemiBold, Bold, ExtraBold, Black)의 굵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변 글꼴(축: 굵기, 광학크기)도 별도로 제작해 사용범위를 확장했습니다.

‘Ortank Hangeul Text / Display’ are the Hangeul version of the previously published Ortank. This is the result of exploring the confines of geometric shapes in both latin and the korean script. Its goal is to ally the radically simple shapes with some classical influence, coming from the lineale grotesque style. The typeface offers a set of letters which are readable in large paragraph format and other kinds of dense content. Its unique shapes maintain legibility on a small scale without causing discomfort. The moment of magic occurs when using the display weight, where we have embraced a digitally radical approach: we have taken Ortanks to its extreme. We treated each weight with sharpness and applied it in a unique way along the whole type family. Ortank Hangeul text and display families consist of a total of 9 weights (Thin, ExtraLight, Light, Regular, Medium, SemiBold, Bold, ExtraBold, Black). Included in the package, the variable fonts (axis: weight, optical size) will help expand the range of usages.

텍스트 블랙 Text Black

텍스트 엑스트라볼드 Text ExtraBold

텍스트 볼드 Text Bold

텍스트 세미볼드 Text SemiBold

텍스트 미디움 Text Medium

텍스트 레귤러 Text Regular

텍스트 라이트 Text Light

텍스트 엑스트라라이트 Text ExtraLight

텍스트 띠 Text Thin

디스플레이 블랙 Display Black

디스플레이 엑스트라볼드 Display ExtraBold

디스플레이 볼드 Display Bold

디스플레이 세미볼드 Display SemiBold

디스플레이 미디움 Display Medium

디스플레이 레귤러 Display Regular

디스플레이 라이트 Display Light

디스플레이 엑스트라라이트 Display ExtraLight

디스플레이 띠 Display Thin

기하학 형태의 한계를 탐구하다, ‘오호탱크 한글(Ortank Hangeul)’

기하학적이면서 디지털적인 느낌의 민부리체 오호탱크 한글 텍스트 & 디스플레이



⇒ 기파란 출시 후, 세번째로 출시할 한글 서체의 스타일에 대해 여러모로 고민이 있었다. 하던대로 이어서 새로운 한글 서체를 구상할지, 아니면 출시했던 라틴서체의 한글 버전을 만들어보는건 어떨지를 계속 고민했다. 기파란을 출시했을때는 오랫동안 내놓는 두번째 한글 서체였던지라 조금 다급한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세번째 서체는 좀 더 편안하게 즐기면서 하자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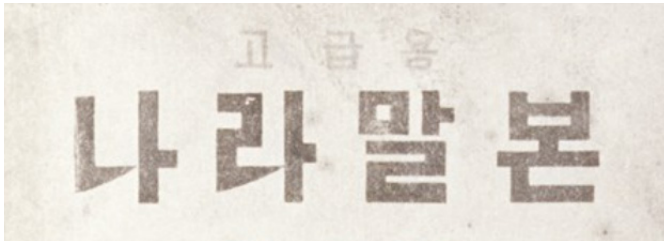
⇒ 그런 와중에 파트너의 제안은 단번에 결심을 서게 만들었다. 오호탱크(Ortank, 이하 오호탱크)의 한글버전이 무척 보고싶다고 언지시 건넨 제안이 귀에 아주 솔깃하게 들어왔다. 오호탱크라는 서체는 현재 lo-ol에서 출시한 라틴 서체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서체이다. (*오호탱크는 텍스트(Text), 디스플레이(Display), 각각의 이탤릭(Italic)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호탱크는 디지털 느낌의 기하학 형상의 지오메트릭 산세리프(geometric sans-serif) 서체이다.)

⇒ 한글 민부리(고딕/돋움)계열에서 기하학적 스타일의 한글 서체 찾기는 무척 쉬운 일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정작 본인은 한번도 기하학적 스타일의 한글 서체를 만들어 본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호탱크가 지니는 독특한 매력이 한글 조형에도 무척 잘 어울릴 거라는 강렬한 확신이 서게되면서 당장 작업을 착수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단순...)

⇒ 오호탱크 한글의 경우, 컨셉을 구상할때 가장 고민 했던 부분은 구조였다. 최대한 기하학적 형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되 너무 조형미만을 강조하고 싶진 않았다. 사실 완전히 기하학적인 구조를 강조하려면 탈네모꼴이 맞을까 싶다가도 본문사용을 위한 가독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해서 네모꼴로 가되 살짝 중심선을 위로 잡고 이응의 형태들을 최대한 정원의 느낌(정원은 아니지만)을 유지하게끔 했다.

⇒ 컨셉 구상시에 항상 스스로를 고민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지점은 “기존의 유사서체와 어떤 차이점을 둘 수 있을까?”다. 굳이 차이를 만들려고 기쓰지는 않는다만 그래도 최대한 한가지라도 차이를 더 넣으려고 하는 편이다. 결국 이런 성향 때문일까, 오호탱크 한글은 차이점의 구렁텅이(???)가 되어버렸다. 텍스트의 경우, 오호탱크 라틴이 가지는 디지털적 느낌을 강조하기위해 기존 민부리계열 서체들과 달리 몇몇 자소에서 곡선을 아예 없애버렸다. (e.g. ㅅ, ㅈ, ㅊ) 디스플레이의 경우, 용도에 맞게 더 다양한 디테일들이 추가되었다.

→ 가령 ㄱ, ㅋ의 경우, 가로모임꼴에서는 기둥 끝 부분이 날카롭게 휘어있다. ㄴ, ㄷ, ㄹ, ㅌ의 연결 줄기도 마찬가지로 날카롭게 올라와 모음줄기와 연결되었다. 이 부분은 과거 1940-70년대 주로 사용된 과도기적 형태의 레터링들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지점은 오프탕크 라틴 디스플레이가 지니는 날카로운 인상과도 연결된다. 또다른 독특한 특징으로는 ㅅ, ㅎ에서 보이는 꺾임 형태이다. 이는 오프탕크 라틴 디스플레이 O, o의 형태에서 보이는 미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애초에 기하학적 구조인만큼 좀 더 형태적 뉘음을 강하게 추구하고 싶었다. ㅈ, ㅊ, ㅍ의 경우,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지점에 대비를 줘 좀 더 디스플레이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ㅅ, ㅍ의 경우, 연결 지점을 살짝 절단해 디지털적 느낌을 한층 더 부가시켰다. ㅍ의 경우도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장식적인 느낌을 살짝 가미했다. (아르바나느낌재탕)



ㄴ, ㄷ, ㄹ, ㅌ의 연결 줄기도 마찬가지로 날카롭게 올라와 모음줄기와 연결되었다. 이 부분은 과거 1940-70년대 주로 사용된 과도기적 형태의 레터링들에서 영감을 받았다.

→ 오프탕크 라틴의 경우, 한글에 맞춰 크기, 너비, 높이, 굵기 등 여러 방면에서 대폭 수정되었다. 한글에 맞춰 새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한영 병기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오프탕크 한글 텍스트/디스플레이는 각각 용도에 맞춰 본문용과 제목용에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텍스트와 디스플레이는 미묘하게 차이가 나서 이게 제목용이다 본문용이다라고 말하긴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다. 제일 추천하는 바는, 매우 얇거나 두꺼운 굵기는 제목용으로 적합하고, 중간 굵기는 긴 텍스트에 사용하기 좋다. 물론 이것도 다 사용자의 선택이기에 그저 어떻게 사용하든 감사할 따름이다.

→ 기하학적이면서 디지털적인 느낌의 민부리체를 찾는 분들에게 오프탕크 한글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오프탕크 한글은 아르바나, 기파란과 같이 테스트해보며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린다. 가령 오프탕크 한글이 제목과 캡션에, 아르바나가 본문에 사용되는 경우도 상상해본다. 오프탕크 라틴 버전이 있는 분들은 오프탕크 이탤릭과 콤보로 써도 매우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오프탕크 라틴 이탤릭 또한 또 다른 매력이 있어 같이 사용하면 멋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것이다.

→ 오프탕크 한글 텍스트/디스플레이는 한글 총 2,788자, 유럽권 언어 지원을 위한 확장 로마자와 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활자들을 포함한 887자로 구성되어있다. 오프탕크 한글 텍스트/디스플레이는 총 9종(Thin, ExtraLight, Light, Regular, Medium, SemiBold, Bold, ExtraBold, Black)의 두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오프탕크 한글 텍스트/디스플레이 가변서체(심지어 두가지 축!)도 따로 제작했다.

→ 오프탕크 한글 텍스트/디스플레이는 기파란 다음으로 출시하는 lo-ol type의 세번째 한글 서체다. 제작기간은 대략 1년 반 정도가 소요되었다. 언젠가 오프탕크 이탤릭의 컴패니언 버전으로 오프탕크 한글 텍스트/디스플레이 홀림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도 든다. 오프탕크 한글은 기존 작업들과 달리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작업한 최초의 서체인것 같다. 그만큼 서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오프탕크 한글을 사용했을때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으셨으면 한다. 오프탕크 한글을 멋지게 즐겨주시길! :D

“오흐탱크 (Ortank) 한글 텍스트”는 지오매트릭 그로테스크 계열의 서체로 기하학적 형태의 한계를 탐구한 결과물, 오흐탱크 텍스트(Ortank Text)의 한글 버전입니다. 직선형 그로테스크 스타일에서 오는 약간의 고전적인 느낌에 단순함이 결합되었습니다. 서체는 큰 단락 형식뿐만 아니라 작은 텍스트까지 여러 종류의 콘텐츠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느낌의 오흐탱크 텍스트는 캡션부터 제목까지 어느 크기에서든 알맞게 가독성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오흐탱크 (Ortank) 한글 디스플레이”는 지오매트릭 그로테스크 계열의 서체로 기하학적 형태의 한계를 탐구한 결과물, 오흐탱크 디스플레이 (Ortank Display)의 한글 버전입니다. 직선형 그로테스크 스타일에서 오는 약간의 고전적인 느낌에 단순함이 결합되었습니다. 서체는 큰 단락 형식뿐만 아니라 작은 텍스트까지 여러 종류의 콘텐츠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느낌의 파격적인 디자인을 지닌 오흐탱크 디스플레이는 굵기가 커질수록 디자인 의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디스플레이만의 독특한 모양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 오와 집

기 오와 집

기 오와 집

기 오와 집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트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레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랑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트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레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랑 떼아트르(Grand Théâtre 대극장)와 제네바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펼친다. 또한 다양한 박물관들이 위치한 제네바는 장신구, 시계, 뮤지컬 시계 등을 전시하고 있는 국제 시계 박물관과,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트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웨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트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웨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랑 떼아트르(Grand Théâtre 대극장)와 제네바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펼친다. 또한 다양한 박물관들이 위치한 제네바는 장신구, 시계, 뮤지컬 시계 등을 전시하고 있는 국제 시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트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웨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트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웨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랑 떼아트르(Grand Théâtre 대극장)와 제네바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펼친다. 또한 다양한 박물관들이 위치한 제네바는 장신구, 시계, 뮤지컬 시계 등을 전시하고 있는 국제 시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트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웨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랑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트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웨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랑 떤아트르(Grand Théâtre 대극장)와 제네바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펼친다. 또한 다양한 박물관들이 위치한 제네바는 장신구, 시계, 뮤지컬 시계 등을 전시하고 있는 국제 시계 박물관과,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트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뤼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랑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트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뤼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랑 페아트르(Grand Théâtre 대극장)와 제네바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펼친다. 또한 다양한 박물관들이 위치한 제네바는 장신구, 시계, 뮤지컬 시계 등을 전시하고 있는 국제 시계 박물관과,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또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뤼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또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뤼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랑 떼아트르(Grand Théâtre 대극장)와 제네바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펼친다. 또한 다양한 박물관들이 위치한 제네바는 장신구, 시계, 뮤지컬 시계 등을 전시하고 있는 국제 시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트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뤼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트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뤼리'는 영국 공원에 위치하는 큰 꽃시계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네바 시계 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네바 지역은 스위스의 최 서쪽에 위치한 주변부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랑 떼아트르(Grand Théâtre 대극장)와 제네바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펼친다. 또한 다양한 박물관들이 위치한 제네바는 장신구, 시계, 뮤지컬 시계 등을 전시하고 있는 국제 시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또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끄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또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끄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웨리'는 영국 공원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또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끄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알프스 봉우리들과 유라(Jura) 지역의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잡은, 스위스의 불어권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론 강 만에 자리한다. 따뜻한 인간미의 전통과 국제적인 도시의 향취가 있는 제네바는 UNO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국제 적십자의 본청이 있는 평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제도시로 불리는 제네바는 제네바 호수의 140m 높이의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제또 분수(Jet d'eau)가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 대규모 호텔과 많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호수의 바로 우측 호반에 위치하고, 많은 쇼핑센터와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 구시가지는 제네바의 심장 지역으로 호반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다. 성 피터 성당을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 구시가지는 도시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광장이 있는 '팔라스 뒤 부르 드 푸르(Place du Bourg-de-Four)'가 그 중심지이다. 항구, 호반에 위치한 산책로, 셀 수 없이 많은 공원, 생동감 넘치는 구시가지의 거리에서 우아한 상점들을 눈요기하며 유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랑-뤼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거리 중 하나로 장-자끄 루소가 태어난 곳이다. '므웨뜨(mouettes)'는 수상 택시로, 커다란 크루즈 선박이 제네바 호수를 유람하는 동안 호수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 UNO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제 적십자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어 이 곳에서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역할 및 각종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로지 플웨리'는 영국 공원에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국토를 관통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살아야만 했던 역사가 있다. 그런 스위스 사람들이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먹어왔던 것일까?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식품회사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가
되는 이 회사를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리,
회사들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사라졌으나 그 브랜드와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의 다양성을 유지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
단일시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일키로로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큰 수입원은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퍼
수출되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린트(Lindt), 토바
등이 대표적인 수출 브랜드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따로 있다. 최초의 초콜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국토를 관통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살아야만 했던 역사가 있다. 그런 스위스 사람들이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먹어왔던 것일까?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식품회사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
되는 이 회사를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리
회사들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사라졌으나 그 브랜드와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의 다양성을 유지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
단일시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일키로로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큰 수입원은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퍼
수출되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린트(Lindt), 토바
등이 대표적인 수출 브랜드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따로 있다. 최초의 초콜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윌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에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윌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에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율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에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윙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율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어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율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율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만든 것이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어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율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만든 것이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어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율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만든 것이

도르도뉴 계곡 (Vallée de la Dordogne)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필수 명소와 액티비티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도르도뉴 계곡 (Vallée de la Dordogne)에서는 매일이 휴일 같다. 높다란 절벽 꼭대기에 자리한 로카마두르 (Rocamadour) 마을에 오르고, 청정한 자연의 소리를 듣고, 라스코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동굴을 둘러보자. 그림 같은 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이르기까지, 쉬어 가는 지점마다 아름다운 지형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미식가들을 위한 맛집 등이 가득하다.

㉠ 베이낙 성(Le château de Beynac)

페리고르 (Périgord) 지방의 견고한 요새 베이낙 성 (Château de Beynac)은 베이낙에카즈낙 (Beynac-et-Cazenac) 마을 위 절벽에 우뚝 서서 도르도뉴 계곡을 9세기 넘게 지키고 있다. 베이낙 성을 방문하는 것은 곧 리처드 1세, 아키텐의 엘레오노르, 시몽 드 몽포르, 그리고 백년전쟁의 발자취를 따라 프랑스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이다. 방문객은 중세 시대의 중심으로 곧장 빨려 들어간다.

㉡ 중세의 성채 도시, 몽파지에(Monpazier)

몽파지에 (Monpazier)는 사를라 (Sarlat)와 베르주락 (Bergerac) 사이에 있으며, 빌뇌브쉬르로 (Villeneuve-sur-Lot)와 카오르 (Cahors), 로 (Lot)에서 가깝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몽파지에는 수많은 유적지들로 '프랑스의 명소 (Grand site de France)'에 등극했다. 유명 유적 가운데 13세기에 전략적 목적으로 건설된 성채는 중세 건물의 꽃이자 300곳에 달하는 프랑스 남서부 성채 유적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 사를라(Sarlat) 시내

사를라라카네다 (Sarlat-la-Canéda)는 누벨아키텐 (Nouvelle-Aquitaine) 주의 도르도뉴 지방에 있는 중세 도시로, 프랑스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남동쪽 페리고르 지방의 대표 도시다. 주요 유적지만 66개에 달한다. 사를라 출신의 유명인으로는 작가 에티엔 드 라 보에티 (Étienne de La Boétie), 정치인 모리스 루엘 (Maurice Rouel)과 피에르 자노 (Pierre Janot), 건축가 장 누벨 (Jean Nouvel), 럭비선수 에릭 알레그레 (Éric Alégret)가 있다.

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ers ‘select’ the area of entered text

오스트리아의 온천과 스파

오스트리아에서는 마사지 효과와 원기회복 효과가 있는 온천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시키는 습관이 고대 로마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한국과도 또다른 오스트리아의 온천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❶ 니더외스터라이히

비엔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바덴바이빈(Baden bei Wien)은 국내에서도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온천휴양지이자 베토벤과 모차르트도 자주 체류하던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❷ 오버외스터라이히

오버외스터라이히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웰빙과 휴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치유 목적의 스파와 놀이를 위한 워터 파크를 함께 갖춘 대규모 스파 시설인 오이로테르멘리조트 바트 슈라레르바흐(EurothermenResort Bad Schallerbach)에서 심신의 피로를 달래주는 따뜻한 물 속에 온몸을 푹 담가 보세요. 또한 오이로테르멘리조트 바트 이슐(EurothermenResort Bad Ischl)에서도 스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이로테르멘리조트 바트 할(EurothermenResort Bad Hall)에서는 중유럽에서 요오드가 가장 많이 농축된 온천에서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인 치료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❸ 잘츠부르크

바드 가슈타인(Bad Gastein)의 펠센테르메(Felsentherme)에서는 알프스의 1,100m 고지대에서 휴식과 스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파노라마 전망을 갖춘 건강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알프스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알펜테르메 가슈타인(Alpentherme Gastein)은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알프스의 건강 및 여가 리조트로, 호에 타우에른 국립공원(Hohe Tauern National Park)의 웅장한 빙하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첼암제-카프룬(Zell am See-Kaprun)의 타우에른 스파(TAUERN SPA)는 약 48,000평방미터의 방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스파 시설은 파노라마 사우나, 염수욕탕, 향기로운 아로마 증기탕, 유리로 둘러싼 실외 풀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❹ 티롤

티롤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온천 스파는 랑겐펠트(Längenfeld)의 아쿠아돔(Aquadome)입니다. 이곳은 50,000 평방미터의 대지에 놀라운 건축적 디자인을 자랑하는 환상적인 유리 구조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롤의 스파 중에서도 손꼽히는 바트 해링(Bad Häring)의 건강 리조트는 키츠빌 알프스(Kitzbüheler Alps)와 빌더 카이저(Wilder Kaiser) 사이에 자리해 있으며, 유황이 함유된 미네랄 온천수와 평온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 TIP!
오스트리아의 사우나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남녀공용입니다. 수영복을 착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으나, 대부분은 전라로 이용합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시설에 미리 확인을 추천합니다.

제목(title) 16 pt / 21 pt
부제(body) 11.5 pt / 18.5 pt
Ortark Hangeul Text Black, Bold

본문(body) 11.5 pt / 18.5 pt
Ortark Hangeul Text SemiBold, Regular

독일문학에 나타난 다문화사회: 스텐 나돌니의 『젤림, 혹은 웅변의 재능』을 중심으로

최윤영

최근 독일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다문화사회’이다. 2000년대의 베를린 등 독일 대도시 풍경은 실제적으로 다문화사회적으로 변모해있다 통계학적으로 보아도 이미 인구의 이상이 소위 과거의 ⅓ 이상이 ‘이민배경’을 지니고 있고 300여 만명의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고 있으며 또한 유럽연합으로 인한 새로운 통합 상황은 민족과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당연시하게 만들고 있다 부분적으로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그 사이 ‘이주노동자’에서 ‘이민자’로 위상이 바뀌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문화논쟁(Leitkulturdebatte)’을 위시한 독일과 유럽의 정체성 논쟁이나 마틴 발저 등의 최근 논쟁²에서 드러나듯이 전반적으로 독일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사회변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정하기보다는 “틈새 시민”으로 인정할 뿐이다.³ 2008 연초에도 “청소년 범죄(Jugendkriminalität)”나 “과도한 타문화(Überfremdung)” 등을 화두로 이민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분명한 사회적 선 긋기 하에서 행해지고 있다.⁴

독일어권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상호문화성(Interkulturalität)’ 논의이다. ‘다문화성(Multikulturalität)’ 내지는 ‘초문화성(Transkulturalität)’이 논의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상호문화성 논의가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이것이 독일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독어권에서는 ‘다문화성’이 상이한 문화들이 병존하는 사회 현상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더 나아가 한 나라 안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통합적 사회 목표로 이해되는 반면 상호문화성 개념은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각 문화체제의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문화적 체제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실천적 행동으로 이해된다. 독문학계에서도 바이로이트 대학의 비어라허를 중심으로 주창하는 ‘상호문화독어독문학(Interkulturelle Germanistik)’이나 2006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독문학자대회에서 발표된 다수의 상호문화성에 대한 논문들을 보더라도 이 개념은 여전히 유효성과 시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1 이와 관련해서는 최윤영(2006), 「독일 이민문학의 현주소」, 실린 곳: 『독어교육』, 제35집, 425쪽 이하 참조

2 1990년대 이후 독일 지성계에서 벌어졌던 우파 반이주주의 독일의 정체성 등의 논쟁에 대해서는 장희권(2006), 「회귀하는 보수주의의 보토 슈트라우스 논쟁을 통해 본 1990년대 독일의 정신사적 지형도」,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34집, 201-226쪽 이하 참조

3 M. Durzak(1991), Schnittpunkte interkultureller Erfahrung. Am Beispiel deutsch-türkischer Begegnung in Sten Nadolnys Roman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in: Praxis interkultureller Germanistik. Forschung-Bildung-Politik. Beiträge zum 2. internationalen Kongress der Gesellschaft für interkulturelle Germanistik, München, S. 292-304.

4 독일사회의 이민자사회에 대한 선긋기는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우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헤센주의 선거에서 드러나듯이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요구는 외관상으로는 독일사회 내부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해당자들이 대체로 터키계 세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이민자 문제로도 볼 수 있다.

[illegible]

Uppercase

파운드리 FOUNDRY,. Korean
250

파운드리 FOUNDRY,. English
240

언어설정에 따라 { ,;...!?!> 띄어쓰기}의 위치 및 너비, 크기 등이 조금씩 바뀝니다.

태어난 날 1986.4.7 Default

태어난 날 1986.4.7 Tabular lining

[(안녕히)],.

[(안녕히)],.

final fjord differ
final fjord differ

«ohmy» «OHMY»



서울시청
Seoul City Hall

만두
Dumpling

광주
Gwangju

토테미즘
Totemism

짬뽕
Jjamppong

휴머니즘
Humanism

파라노이아
Paranoia

화요일
Tuesday

융프라우요흐
Jungfraujoch

김치찌개
Kimchi stew

페미니즘
Feminism

브라우니
Brownie

순두부찌개
Soft tofu stew

브리엔즈
Brienz

제네바
Geneva

우수아이아
Ushuaia

돼지갈비
Pork-ribs

레겐스부르크
Regensburg

말레이시아
Malaysia

대한민국
South Korea

프랑스
France

에쿠아도르
Ecuador

주문진
Jumunjin

삿포로
Sapporo

서대전
Seodaejeon

설렁탕
Beef soup

월요일
Monday

서울시청
Seoul City Hall

만두
Dumpling

광주
Gwangju

토테미즘
Totemism

짬뽕
Jjampong

휴머니즘
Humanism

파라노이아
Paranoia

화요일
Tuesday

융프라우요흐
Jungfraujoch

김치찌개
Kimchi stew

페미니즘
Feminism

브라우니
Brownie

순두부찌개
Soft tofu stew

브리엔즈
Brienz

제네바
Geneva

우수아이아
Ushuaia

돼지갈비
Pork-ribs

레겐스부르크
Regensburg

말레이시아
Malaysia

대한민국
South Korea

프랑스
France

에쿠아도르
Ecuador

주문진
Jumunjin

삿포로
Sapporo

서대전
Seodaejeon

설렁탕
Beef soup

월요일
Monday

만 각 낭 맑 저 달 용 겹 샷

کم 글 야 획 꺾 한 의 장

맘 윈 해 뻗 경 툴 뻗 술 안

운 딱 쉼 장 친 켈 평 암 현

공 구 닳 류 흥 녀 류 풍 계

콜 라 었 편 덮 참 판 숲 북

짜 효 씹 쥐 탈 닳 숭 읊 넓

춤 켈 권 환 패 헛 봤 제 권

Thin

ExtraLight

Light

Regular

Medium

SemiBold

Bold

ExtraBold

Black

Ä 3 Ķ 6 R Ō W ‡ D
 Q Ž a m Ů N £ æ P
 \$ 4 ¥ 7 8 Ë n ↘ §
 2 ç ₣ b ħ \$ € ₮ @
 @ M g ¾ ₹ á ¶ & №
 f fj 5 z s ? G ë ê
 9 † Đ ß ġ ē 𐀀 G Ø
 ↖ 0 ŝ ř ę Ź Œ Ł Ť

Thin

ExtraLight

Light

Regular

Medium

SemiBold

Bold

ExtraBold

Black

Ortank Hangeul Designers Infos

More informations
info@lo-ol.design

Noheul Lee



Passionated by type design, Noheul Lee graduated from the Type and Media program at the KABK, The Hague. Currently she is working as a Hangeul & Latin multi-script type designer and a partner of 'lo-ol type studio', a studio based in Switzerland & Seoul. Her work has received recognition and acclaim; she won the 6th Bang Il Young Cultural Foundation Fund Competition for her Hangeul design called 'Arvana'. She also received Gold medal in the Morisawa Type Design Competition for the Latin design of 'Areon'.

Loris Olivier



Since the first encounter with interactive design in 2004, Loris has never stopped to feed his curiosity. After studying in the USA,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he experimented with different field of digital design and web development. Whether it's through typography, motion design, 3D modeling, UI and UX design, he always tries to push toward new territory in between current cultural artefacts and representation.